

## ‘현장 체험 속에서 좋은 제품 나온다’

GP전서 최고상 수상한 사회 초년생

### 시각디자인 전공한 인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 가운데 포장기술이 우수하며 독창성이 있고 내용물의 보호기능, 운반·보관·하역 등 상품 취급의 편리기능, 판매촉진기능 등이 뛰어난 포장상품을 선정, 장려하여 포장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포장(GP)상품 선정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선정제에는 94개 업체 259품목이 출품돼 독특한 포장기법을 보여줬는데 이 가운데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에는 (주)한국농산물유통의 딸기(사과, 토마토) 농산물 포장이 차지했다.

운반, 보관이 편리하고 시각적 차원에서의 고급화, 상품화가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는 농산물 포장이 개발되기 까지는 (주)한국농산물유통(대표 채웅기) 전우석 씨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GP에서 수상한 농산물 포장은 지난 89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거듭되는 실험과 상품화를 거쳐 탄생한 것으로 내년에 용도별 제품화가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산물포장 개발 주역인 전우석 씨는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지난해 한국농산물유통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측에서 개발해 오던 부분에 참여하여 디자인을 비롯하여 농산물 포장제품을 완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심사위원 및 GR준비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어 기쁩니다”라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번에 출품한 제품은 BI(브랜드 동일화)차원

을 강조하고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쉬운 디자인을 적용시켜 회사 이미지와 제품의 이미지를 알기 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대표적 이미지 표출 위해 고심

전우석씨는 “과일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 실물에 적용하기 위한 디자인의 단순화 작업과 과일상자라는 대표적 이미지의 표출이 어려웠고 운반·보관·하역시 과일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박스재질의 선택 등이 개발과정의 어려움이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 많은 실험을 거쳐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해질 때까지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박스 강도를 높이고 부드러운 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디자인을 구상했다.

전우석씨는 “이번 우수포장상품 선정제는 농산물 포장분야에 있어 포장분야의 발전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 평가하고 참가의 보람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전우석씨는 “현재 국내 포장관련 교육은 디자인에 치우쳐 있고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인쇄, 지중, 제판기술 등 전반적인 것을 짧은 기간에 배우기 때문에 상품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창작에 불과한 학교교육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포장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포장관련 교



현장 경험이 좋은 제품디자인을 낳는다고 믿는 전우석 씨는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갖춘 포장재 개발로 수입개방에 대처하겠다는 포부다.

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몸소 체험하는 것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전우석 씨는 “실무 경험자와 대화를 통해 창작된 포장디자인을 제품에 적용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양하고 특성있는 농산물포장 개발

그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GP마크제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매우 이쉽게 여기고 있는데 지속적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포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시키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유통업계에도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교육과 관련해 정부측에 바라는 점은 포장디자이너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시행과 전문 포장디자인 학과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져야 포장분야에서 일하는데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기업에서도 포장은 곧 마케팅이라는 인식으로 포장기술과 디자인 관련부서에 적극적 지원을 통해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

시했다.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산학연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전우석 씨는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통해 수입개방에 맞설 수 있는 수요층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기능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고급스런 포장의 개발을 강조했다.

“사실 농산물 포장은 관심이나 선호도가 적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당하게 포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품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도록 관심을 가져준다면 포장산업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마케팅을 위한 상품포장 기법의 개발이 적어도 5년은 기업만족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전문카다운 말을 잊지 않았다.

전우석 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박스를 개발하고 기능도 다양한 특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농산물 포장분야를 재인식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경력보다 성숙한 의지를 보였다.

오 선 진 기자